

함께 즐거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75

2017. 3.5

2017년 주님의교회 표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레 19:2, 롬 1:17)

오늘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_ 마태복음 5:16

오늘의 주요기사

- 2 종교개혁 이야기
- 3 영화로 성경읽기
- 4 청빙위원회 특집
- 5 청빙위원회 취재
- 6 중미선교사대회
- 7 목회칼럼
- 8 아기나들이, 알립니다

교회 일정

3/5(주일)	사순절 첫째주
3/7(화)	늘푸른대학 개강
3/8(수)	겨자씨 인도자 교육 시작
3/12(주일)	성찬주일

발행인 : 박원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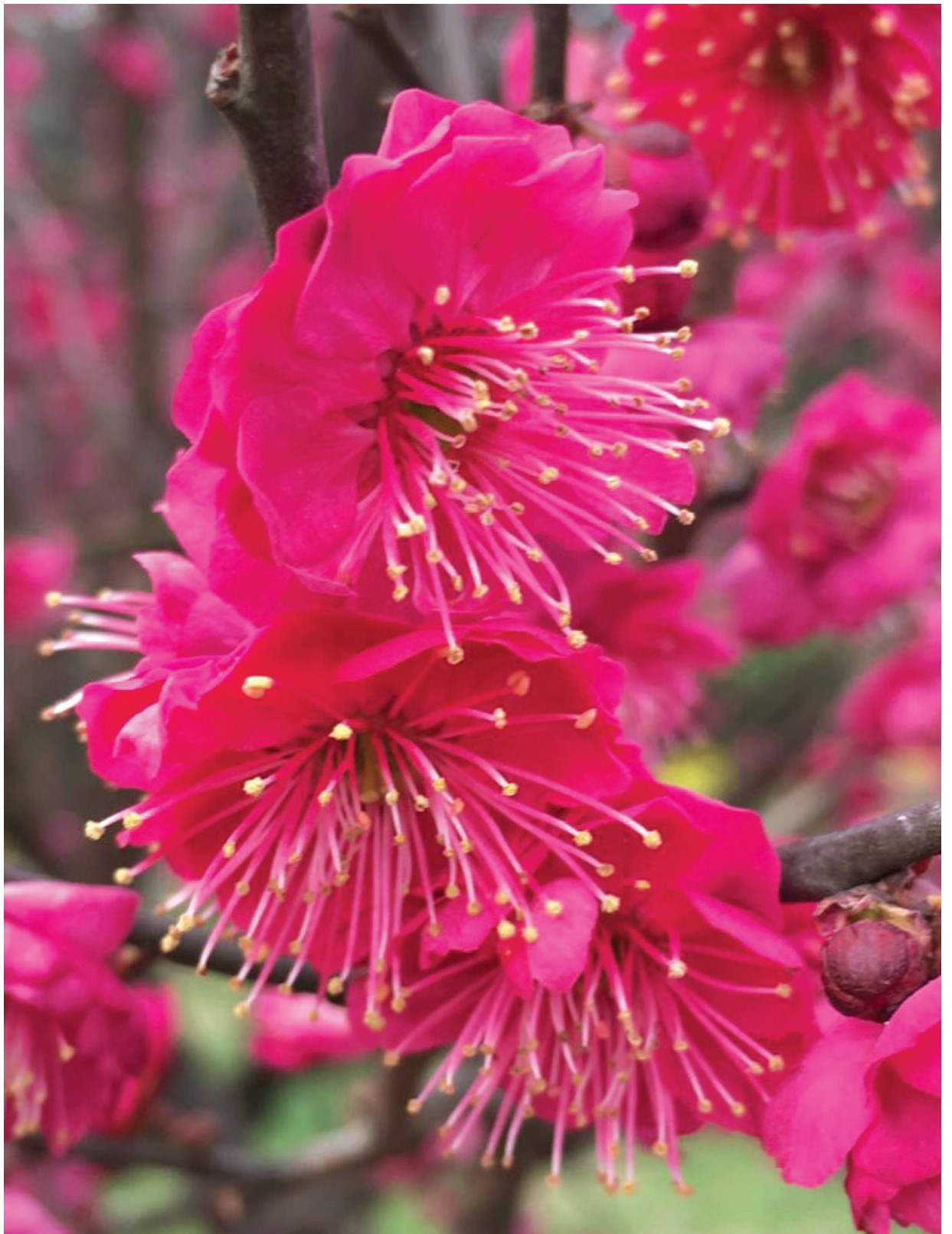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줄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활짝 핀 홍매화. 죽음의 겨울에 생명의 봄이 왔음을 알리는 듯하다

웃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이다. 올해 부활절은 4월16일이므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참회의 여정이 3월1일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시작되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던 것을 본받아 성도들이 금식함으로 죄를 참회하고 경건한 시간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7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통 그 첫날 온 회중이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는 것으로 참회의 시작을 알린 것이 재의 수요일

의 기원이다. 개신교는 카톨릭보다 다소 간략하게 절기를 지키다보니 주님의교회 성도들도 이 시기에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전통적으로는 금식으로 육신적인 욕구를 절제하며 보내는 기간인데, 오늘날에는 금식에 대한 입장도 다양화되어 특별히 강조되지 않는 것 같다. 대신 먹을 것 말고도 우리가 매여 사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성찰의 기간을 보내기도 한다. 하루 한 끼 정도를 금식한다든지, 간식이나 커피를 금식한다든지, 근래에는 스마트폰 금

식도 이야기되고 있다.

올해 사순절의 본 의미가 더욱 다가오는 것은 구태의연하게 종교생활을 해오던 우리의 면면을 돌아보기에 적절한 때가 아닌가 싶어서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에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딱히 애국자도 아닌데 매일 나라 걱정을 하는 어수선한 때에 우리 사회에서 교회의 존재와 역할을 반성해 볼 때이다. '웃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욥2:12-19) 하신 말씀 앞에 더욱 부끄럽다.

함줄함울

종교개혁 이야기 1

종교개혁의 배경

올해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1517년 10월 31일)이 5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다. 현재의 모든 개신교회는 종교개혁가들과 그들의 정신을 공유해 온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에 빛진 자이기에 교계 안팎으로 개혁에 대한 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이때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더 특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종교개혁을 함께 이야기하며, 종교개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을 되새김하는 시간을 갖길 원한다. 우선 종교개혁을 말하기에 앞서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는 중세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당시의 여러 사회현상

종교개혁이 일어난 유럽의 15-16세기는 변화와 격동의 시기였다. 정치·경제·사회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현상들이 종교와 함께 호흡하고 영향을 주고받게 된 것이 종교개혁으로 꽃피었다 말할 수 있다.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중세 유럽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대륙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다. 이는 자연스레 부의 축적을 낳게 되었고, 유럽에 상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등장한 시기 도 바로 이 중세이고, 그간 신정일치를 통해 막강한 권위를 자랑하던 교황권이 흔들리고 지방자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신자들이 낸 막대한 세금과 헌금들이 로마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던 때 역시 중세이다.

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인쇄술의 발달이다. 인쇄술의 발달은 종교개혁이 성공하는데 일등 공신이였다. 동물을 잡고 가죽을 두들겨, 그 위에 필사하는 방법으로 책을 만들려면 꼬박 2개월이 걸렸지만, 구텐베르크 금속활자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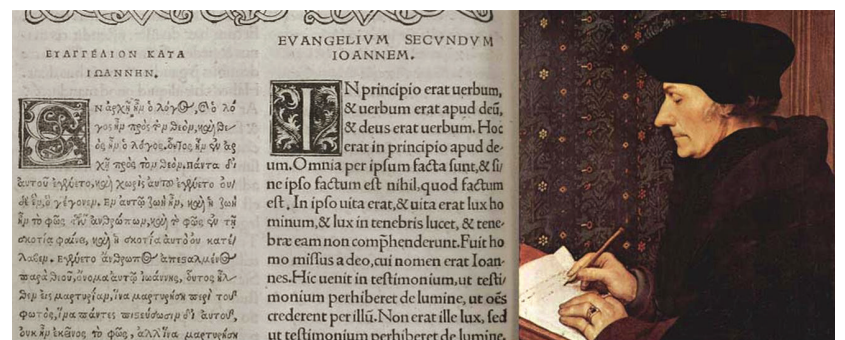
장으로 일주일에 책 500권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루터의 독일어 성경과 글들을 온 유럽에 마치 대포와 같이 강력하게 전달되었다. 인쇄술을 두고 루터는 ‘온 세상에 참된 종교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의 선물’이라고까지 극찬하였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운동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운동이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운동은 1350-1550년에 이탈리아에서 시작해 북부 유럽으로 확산된 사상·문학·예술 전반의 변화를 일컫는다. 르네상스 사상가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문주의 경향을

지니고 있었고, 종교개혁운동 역시 중세 가톨릭의 잘못된 관행들을 비판하며 중세 이전(고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니,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운동의 공통점은 모두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를 내걸었다는 것이다.

가톨릭은 오랫동안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을 사용해왔는데,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1516년 헬라어 신약성경을 출판했고, 라틴어 성경의 오역들을 지적해냈다.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은 루터의 사상과 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의 알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성서를 번역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이야기는 다음 호에 이어진다. 박주영 전도사



에라스무스와 헬라어성경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99

菓子煎餅(과자전병, wafer)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출애굽기 29장 2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호세아 7장 8절)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곡물가루를 반죽하여 구운 과자이다. 약간 두껍게 구운 것, 둥글게 구운 것, 얇고 둥글게 구운 것 등 반죽 정도와 굵는 모양에 따라 각기 다양한 원어가 사용된다. 성경에서는 과자, 떡 등으로 번역된다. 하나님께 제

물로 드리기 위해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은 무교전병이라 한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제때 뒤집어주지 않아 아래쪽은 타버리고 위쪽은 설익은 과자를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하는데 한편으로 위선에 빠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방인과 같이 세속화 되어버린 이율배반적인 신앙행태를 꼬집는 말이자 쓸모없는 허망한 존재를 일컫는 비유적 표현이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菓(과자 과, 과실 과): “꿀잎”을 상형화한 艸(풀 초)의 변형체 卩(초두 머리)와 “나무열매”를 상징하는 果(과실 과)를 합쳐【달콤한 찻잎과 과실을 줄여 만든 음식이 과자다】라는

문자가 만들어졌다.

★子(아들 자): 【큰머리에 작은 몸집으로 다리를 구부린 모습의 아기가 아들이다】라는 상형문자이다. 딸, 사람, 2인칭, 알, 접미사, 존칭 대명사의 뜻이 있다.

★煎(지질 전, 구울 전): “앞서다. 나아가다. 일찍이”라는 뜻을 지닌 前(앞 전)에 火(불 화)의 변형체 灬(연화 발)를 결합하여 【나아가 불 위에 음식을 올리고 지지거나 굽는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餅(떡 병): “밥 또는 먹는다”는 뜻이 있는 食(밥 사, 먹을 식)에 “방패를 줄지어 세운 모양의” 并(나란할 병)을 합쳐 【밥을 찢어 같은 모양으로 나란하게 만든 음식이 떡이다】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함줄함울

섬기는 손 41



따로 또 같이 나눔을 나눌 때 마음은 각각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하며 반찬을 나눈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고 따로 또 같이.

독거 어르신들과 장애인들께 드릴 반찬을 만들고 나누며 맛있는 냄새를 맡으며, 행복을 느끼는 섬김의 손입니다.(제5여선교회 수서복지관 봉사 중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영화로 성경 읽기

〈라이언〉, 자신을 찾아가는 먼 여행

혹시, 어린 시절 길을 잃어본 적이 있는 지? 어디론가 누구를 따라 가다가 문득 길 한 가운데 혼자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란 경험이 있는 지? 길을 스쳐가는 그 많은 사람들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의 그 공포를 겪어본 적이 있는 지? 때로는 그 ‘많은 사람들’조차도 없는 공간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척추를 관통하는 전율과 느닷없이 눈앞에 닥쳐오는 어둠을 만나본 적이 있는 지?

집을 잃은 한 어린아이

이 영화는 바로 그 잃음과 놀람과 공포와 전율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신도 모르는 채, 그 상실과 낙오와 고립과 공포와 어둠에 익숙해졌다가, 문득 떠나온 곳의 존재를 깨닫고 어렵게 찾아 돌아온 이야기이다. 회복과 귀환과 동행과 행복과 빛을 찾아온 이야기이다.

1985년 인도의 빈민촌 한 마을에 5살 난 사루, 형 구뚜, 누이동생이 엄마와 함께 살았다. 석탄수송 화차에서 훔친 석탄 한 부대로 겨우 우유 한 봉지를 바꾸어 먹고 사는 비참한 삶이었다. 어느 날 형 구뚜를 따라 음식을 구하러 역에 갔던 사루는, 돌아오지 않는 형을 기다리다 무심코 기차를 탔다. 그 기차는 1500km나 떨어진 콜카타로 사루를 데

려갔고, 사루는 혼자가 되었다. 고아원으로 간 사루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양 부모에게 입양되었다.

25년이 지났다. 대학생이 된 사루에게 인도 친구들이 생겼고, 그들로 하여 어렸을 때의 집과 형과 엄마와 누이동생의 기억이 떠올랐다. 사루는 친구의 도움으로 구글에서 만든 지도 프로그램 구글어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집을 찾아보기로 했다. 당시의 기차 속도를 계산해서 자신의 고향이 있을만한 지역을 모두 뒤져보는 데 삼 년이 걸렸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어느 날, 사루는 형을 기다리던 역 플랫폼에서 눈에 익었던 물탱크가 있는 정거장을 찾아내었다. 비로소 사루는 고향과, 여동생과, 어머니와, 자신의 과거를 찾았다.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사루 브리얼리가 쓴 자서전 〈집으로 가는 먼 길 (A Long Way Home)〉의 내용을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스 데이비스 감독이 그대로 영상으로 재현한 것이다. 이 단순한 이야기가 만일 당신의 영혼을 축축하게 적신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아마도 길을 잃었던 적이 있거나, 어둠 속에 홀로 고립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거나,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 굶었던 어느 날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혹시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이 이야기가 가슴을 적신다면, 그것은 이 영화가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속성의 한 부분을 은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의 이론〉을 쓴 게오르크 루카치가 “소설이란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말했듯, 모든 서사는 사실 자신이 떠나온 어딘가를 향해 모험하는 지난한 여정이다.

언제까지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분

이 영화는 그 여정 가운데 의미 있는 두 존재를 사루 앞에 보여준다. 하나는 사루를 입양하고 사랑하며 키우는 엄마 수이다. 수는 아직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루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한다. “언젠가 네 이야기를 전부 들려줘. 언제까지나 들어줄게.” 우리 이야기를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전부 들어줄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 사루는 자신의 방향을 지적하는 여자 친구 루시에게 말한다.

“지금도 매일 같이 내 진짜 형과 엄마가 날 찾고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구뚜는 그날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사루의 고향에는 어머니 카틀라가 언젠가는 사루가 고향을 찾을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두 존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유이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리신다.

사루는 엄마를 찾기 전까지, 자신의 이름을 ‘사루’라고만 알았다. 그는 고향을 찾은 후 비로소 그의 이름이 ‘사루’가 아니라 ‘세루’인 것을 알게 되었다. ‘세루’는 ‘사자’라는 뜻이었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가 ‘사자’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때로 개나 돼지처럼 산다, 우리의 이름을 지어준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함글함글

〈영화로 성경 읽기〉는 우리가 보는 영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영화는 2016년 발표된 〈라이언〉 편입니다.

수련회

청년부 겨울수련회 ‘괜찮아’



청년부는 지난 2월 9-11일 겨울수련회를 다녀왔다. 삶과 신앙 안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아파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청년들은 ‘괜찮아’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사랑으로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또한 청년부에 새로 부임한

문희삼 목사를 주강사로 한 세 번의 집회, 그리고 다채롭게 준비된 특강, 워크샵, 공동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누리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삶과 신앙의 도전을 멈추지 않기로 결단한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김요한 전도사

수련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네

처음 수련회 왔을 때 같은 조에서 어떤 아이들은 만날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살짝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친구들이랑 같은 조가 되고, 다른 조원들도 마음이 잘 맞아서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수련회가 제대로 안 될 것 같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고 하는 활동마다 재미있고 잘 되어서 좋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둘째 날 저녁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저는 뭔가 뼈까번쩍한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저를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만나 주시지 않아 억울하고 슬

픈 마음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인 기도를 마치고 서로 기도해주는 시간이 되었을 때, 친구 단이가 손을 잡아주며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선생님이 등에 손을 얹어주시며 기도 해주시자 슬펐던 마음이 어느새 몽클해졌습니다. 전에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몽클해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남을 위해 주는 것에 대해 깨우쳐주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1학년 후배를 기도해줬을 때 그 배움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과 감화를 받는 좋은 수련회였습니다. 중등부 이준모

청빙위원회 특집기사 ❶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을 위해 꼭 알아야 할 12가지

10년 만에 맞는 담임목사 청빙의 과정을 맞아, 청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이는 청빙의 과정 자체가 주님의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하고, 교회의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교인 각각의 신앙을 한층 더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올해는 교회 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주님의교회가 가졌던 창립정신을 새로 맞을 10년에 담기 위해서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교회의 표어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의교회가 기존 제도를 고수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를 앞서는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이번 청빙의 과정 자체가 교회 공동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래 내용은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뉴스앤조이, 2013)과 관련 자료를 발췌, 요약했습니다. **함울함울**

목차

- ①청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 ②좋은 목회자란 어떤 목회자인가요?
- ③한국 교회의 청빙 방식은 어떤 게 있나요?
- ④청빙의 단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⑤청빙 과정을 위해 영성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 ⑥교회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켜 보는 까닭은요?
- ⑦미션스터디란 무엇인가요?
- ⑧청빙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게 좋을까요?
- ⑨청빙에 대해 교회법과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⑩청빙 과정에서 교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 ⑪청빙 과정에서 가려야 할 것과 밝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⑫청빙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요?

1. 청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청빙(請聘)이란 "부탁하여 부르다"는 뜻이다. 보통 교회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직장에서 직원을 선발하는 것과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청빙은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을

교회가 대행하는 것이다. 성령 강림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선지자를 부르고 파송하셨다. 또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말씀하셔서 그가 세우실 자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일을 맡기셨다. 성령 강림 이후에는 교회를 통하여 선택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받드는 '권위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역시 개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온전치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교회가 모여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더 완전하고 객관적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의미에서, 청빙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수행하는 과정이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 청빙은 중요한 문제이다. 청빙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수도 있다. 또 잘못하면 청빙 과정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교인이 '갑'이 되고 목회자가 '을'이 되는 일도 발생한다. 목회자는 경영자가 아니며, 교인들에 의해 고용된 일꾼도 아니다. 목회자로 청빙된 담임목회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도들을 양육하며 돌보고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자이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를 새롭게 청빙하는 교인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청빙 과정을 마치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2. 좋은 목회자란 어떤 목회자인가요?

청빙에 임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좋은' 목회자를 모시려 한다. '좋은' 목회자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교회의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된 바람직한 목회자상의 총합을 좋은 목회자라고 볼 수도 있다. 유학을 했거나 설교가 좋거나 영성이 뛰어나 교회의 양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목회자를 말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모든 조건을 갖춘 훌륭한 목회자를 구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교회 전통과 규모에 비추어, 교회 사역에 적합한 목회자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아무리 좋은 목회자를 청빙하더라도 교회와 맞지 않으면 결코 좋은 청빙이라 할 수 없다. 성령은 교회와 목회자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 그러기에 교인들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도출한 교회의 미래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적합할 것인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3. 한국 교회의 청빙 방식은 어떤 게 있나요?

한국 교회의 청빙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진다. 각각 한계와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승계 방식

교회의 전임 목회자가 후임 목회자에게 교회를 승계하는 형태이다. 후임 목회자는 부목사이거나 자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후임자가 이미 교회 비전을 공유하고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알고 있는 등 검증받았기에 안정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단별로 부목사가 승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력화하면서 부목사간에 갈등의 요지가 있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 교회를 사유화하고 교회를 세속화하는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다. 주님의교회가 속한 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도 자립교회가 아닌 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승계를 금하고 있다.

추천 방식

특정인이 후임 목회자를 추천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특정인은 전임 목회자와 교계의 유력한 목회자, 또는 평신도 지도자를 말한다. 이런 추천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후보자에 대한 인격, 영성, 삶을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워 후보자에 관해 잘 알고 있는 분의 추천이 확실한 검증 절차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추천 방식도 교인 전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권이 개입될 수도 있고, 추천자에 의해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다.

공모 방식

공모 방식이란 공개적으로 공고하여 후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으로, 특정인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후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방식이다. 공모 방식은 청빙의 절차가 투명해야 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점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삶을 아는 데 한계가 있으며, 청빙위원회가 후임 목회자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건강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교회를 진단하고, 바른 목회자상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추천 / 공모 방식

공모와 추천을 겸하는 방식이다. 즉 추천자도 여러 후보들 중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이런 혼합 방식은 잘못하면 내정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공모가 될 수 있고, 추천인의 영향력이 커지기에 추천제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나 절차상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추천 방식과 공모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일 수도 있다. 이번 주님의교회 청빙은 추천/공모 방식으로 후보자를 모집했다.

청빙위원회 취재 기사

새 담임목사 청빙,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 박원호 담임목사의 임기가 올 6월에 마치게 됨에 따라, 후임 담임목사의 청빙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19일 청빙위원회에 의하면 지난 1월 말로 마감한 공개 응모와 추천 접수 과정을 통해 30여 명으로부터 지원서류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임기제의 역사

주님의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기본 정신에 따라, 초대 이재철 목사의 재임 시절 담임목사를 비롯한 주요 항존직의 임기제를 결정했고, 이재철 목사가 부임 만 10년만인 1998년 6월 사임함으로써 모범을 보였다.

주님의교회는 2012년 1월 1일 시행된 정관 제3조에 실천이념으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의 임기제 시행을 원칙으로 함을 밝혀서 이를 명문화했다. 2대 임영수 목사, 3대 문동학 목사는 중도에 사임한 바 있다. 따라서 현 4대 박원호 담임목사가 교회의 정관을 존중하여 임기를 마치기로 한 것은 교회의 실천이념이 전통으로

확립되는 데 기여한 중요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청빙 절차

이번 담임목사 청빙 절차는 크게 준비절차, 본절차, 결정절차, 부임절차의 4가지로 구성된다. 준비절차는 청빙위원회의 구성, 교회 내 여론 수렴과 기도회, 미션 스터디로 이루어진다. 본절차는 청빙공고, 응모와 추천 접수, 3단계에 걸친 심의로 구성되며 이 과정을 통해 2명의 후보를 당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당회에서 추천 후보 중 1인의 선정을 의결하고, 제직회에 경과를 보고하여 출석 제직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후보자 선정을 결의하게 된다. 결의 후에는 공동의회에 그간의 청빙 일정과 경과를 보고하고 후임 담임목사를 소개한다. 부임절차는 청빙약정, 일정의 조율, 협약과 환영식, 담임목사 청빙에 대한 노회보고, 취임예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향후 진행 일정

현재는 준비절차는 완료되고 본절차

중 응모와 추천 접수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후 3월 중 1단계 서류 심의를 통해 10여 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6월까지 인터뷰와 현장 방문 등 2단계 심층심의를 통해 3~5명을 선정한 후, 6~7월경에 3단계 종합 평가를 거쳐 제1후보, 제2후보를 당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대략 8~9월경에 당회와 제직회 의결, 공동회의 보고 등의 결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신임 담임목사의 취임예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보살핌과 은혜 속에 이루어져야 하며, 매 단계마다 합리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으므로 예상치 않은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모든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은 철저한 보안 속에 기밀로 유지된다. 해당 후보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현 재직 교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체의 기도와 관심 필요

이번 부임할 담임목사는 주님의교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40주년이 되는 10년간 주님의교회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와 지역, 인구 구성 등 목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향후 10년을 담당할 담임목사가 어떤 목회철학을 갖고 어떻게 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주님의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청빙 과정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요청된다.

청빙위원회의 김창안 장로 역시 “그동안 담임목사님의 재임 중이어서 적극적으로 청빙 과정을 알리기 어려웠음을 이해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시무장로, 2월 중순부터 권사회의 릴레이기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3월 하순부터는 안수집사의 릴레이기도가 진행될 예정이다.

함글함글

기도회

금요일에 만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한국 교회에서 금요기도회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요즘에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금요기도회는 주로 ‘철야기도회’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실행되었다. 밤을 맞으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본을 받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기도로 지새운 것이 철야기도회였다면, 시대에 맞추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기도회이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금요기도회의 주된 언어는 바로 ‘성령’이다. 과거 오순절 계통의 편협한 성령신학으로 부르짖고, 넘어서는 모습의 금요기도회였다면 이제는 일상에서 함께 생활하고 지내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교회에서는 2013년 ‘겨자씨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라는 명칭

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였다. 매월 첫째 금요일에 겨자씨 모임을 금요기도회로 대신하며 기도에 대한 필요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는 교구 집중사역으로 사역의 방향을 이끌어가면서 각 교구별로 금요기도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였다. 교구 집중사역에서 금요기도회는 기도회라기 보다는 교구별 모임의 시간이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공동체로서 교구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공동체의 회복과는 다르게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감을 아쉬워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와 함께 담임목사님의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나라의 상황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연합하여 기도회를 했으면 하는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던 중 2016년 12월에 ‘나라를 위한 전교

인 기도회’가 세차례 열리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7년부터는 금요기도회를 연합으로,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실행하게 되었다. 물론 교구별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몰랐던 교구 식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담당 목사님들을 가까이에서 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열망은 성도간의 교제보다 더욱 큰 뜨거움으로 다가왔다.

연합기도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에 기도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는 기도와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균형, 개인적인 기도제목과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품는 기도제목이 균형을 이루길 소망한다. 하나님나라 확장에 금요기도회가 작은 힘이 되길 소망한다.

김용웅 목사

여성교회

수서복지관 봉사



제5여성교회에서 수서 복지관에 밀반찬만들기 봉사를 다녀왔다. 좁은 조리실에서 독거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전달할 밀반찬을 만들었다. 분주히 움직이는 시간은 기분 좋게 땀이 나는 사랑나눔의 시간이었다. 55분께 나누어 드릴 청포묵 쇠고기 볶음을 만들고, 방울 소세지를 볶고, 고추장에 오이를 버무리고, 김치를 담고 포장하는 손놀림이 바쁘다. 함께한 봉사자들과 한마음이 되어 손발이 잘 맞았다. 섬기며 받아드리고 감사하고 나누어 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었다. 유윤실 집사

선교대회

중미 선교사대회를 다녀와서

중미선교사 대회가 2월6일부터 2월 10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다. 중미선교사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린다. 중미 지역에 속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은 멕시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쿠바 그리고 콜롬비아이다. 특별히 주님의교회는 이 대회를 주관하여 개최하도록 기도로 협력하며 도왔다. 그리고 이 대회를 통해서 주님의교회 파송선교사인 금상호선교사님은 중미선교사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어 2017년~2018년 말까지 2년 동안 회장직을 감당하게 되었다. 선교사대회에서 박원호 담임목사님은 중미선교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교육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 및 세미나를 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목회전략과 더불어 제자훈련, 성경공부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으며, 담임목사님은 지금까지 준비했던 하나님 나라



중심의 새로운 선교전략을 나누어 줌으로 풍성한 나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중미선교사대회에서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다. 요즘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예전과 같지 않

은 상황에서도 선교사님들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진 빛을 다시 복음으로 갠아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선교의 현장과 파송교회간의 거리가 멀어서 많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선교지를 떠나야만 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었다. 중미지역은

가난과 마약, 그리고 종교혼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선교의 씨앗이 곳곳에 뿌려져야 하는 상황이다. 생각해 보면 중미지역은 새로운 복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통한 새로운 전환을 통해서 직접적인 교육선교의 장이 많이 필요한 사역의 현장이라 느껴진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인디오 지역과 누구나 손쉽게 손댈 수 있는 마약으로 인해서 인생을 버림 받은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들었지만 혼합주의로 인해서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여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바로 중미지역이다. 지금의 시대가 어렵지만 우리 역시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인 것을 감안 한다면 이 지역에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할 빛진 자의 삶이 아닐까.

이은석 목사

선교이야기 3

복음을 자유롭게 함

유대문화 중심의 초기복음운동

예수님께서 선교의 대위임령을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으며 선교 역사가 장엄하게 시작되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시기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유대 전통과 관습, 절기등 익숙했던 것들을 지켰기에 오직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만이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전 세계에 걸쳐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일부임을 인식하지는 못했다. 그런 이유로 초기의 복음 운동은 독특하게 거의 유대 공동체 내에서만 일어났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곤 했다(행11:19). 여전히 예

수님이 오직 유대인들만의 것이고 자기들 만이 복음의 후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행11:20)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여 믿고 주께 돌아왔다(행11:21). 이는 실로 전환점이 될 만한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 및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선교팀이 안디옥을 떠나면서 이방인 세계에 복음 운동이 일어났다

고넬로 사건을 통한 깨달음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꿈에 계시를 받고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로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 집을 방문하여 같이 식사하고 복음을 전한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을 들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다

는 이유로 베드로를 공격하자 베드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했고 그 후에야 비로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바울에게도 이와 유사한 경험들이 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으나(행14:27)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으며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행15:1)고 반대하자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일어났다. 베드로가 고넬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교훈으로 그 토론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날에 문제가 된 것은 결국 복음의 순수성과 기동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복음의 진수와 복음의 유대 문화적 배경을 구분했다. 만일 바울이 이 논쟁에서 졌다면 복된 소식이 과연 얼마나 멀리

퍼져 나갔을까? 아마도 기독교는 수많은 유대교 분파 중 하나가 되고 말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화권을 뛰어넘는 복음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전통이나 우리 기독교와 예수님을 구분해야 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꾸어 놓은 것에 매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역으로 복음을 듣는 자들의 문화를 무시해서도 안된다. 우리가 심어놓은 복음의 화분을 그들에게 통째로 주는 것 보다는 그들의 화분에 복음의 씨를 심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럴 때 복음은 기동성을 가지고 거침없이 전진할 것이다.

(참고: '복음을 자유롭게 함', 퍼스펙티브스, M.R. 토머스) 해외선교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고자 해외선교팀의 제공으로 12회에 걸쳐 선교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목회칼럼

주님의 숲을 꿈꾸는 겨자씨들

숲은 그 안에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나무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각양각색의 동물들과 식물들이 그 안에서 함께 머물고 자라납니다. 숲 속에서 때로는 어떤 생명이 죽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숲은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거센 폭풍 앞에서 한 그루의 나무는 쉽사리 뿌리가 뽑히고 쓰러 집니다. 제아무리 강한 나무일지라도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 집니다. 하지만 군락을 이루고 있는 숲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서로의 뿌리들이 엉켜서 보이지 않는 견고한 버팀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습들이지만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나무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무

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었지만, 숲은 나무보다 강합니다. 숲의 거대한 앞에서는 폭풍조차도 작게 보일 지경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하나가 아닌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는 하나의 몸에 대해 언급합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유기적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에서 서문이나 끝맺음에 꼭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인사를 결코 빠뜨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잘못에 대해 무섭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교회란 함께 보듬으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함께 수련회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늦은 밤 야식을 나눠먹으며 이야기 꽃을 피우고, 함께 땀 흘려 수고하고 섬기는 현장이 있을 때,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됩니다. 경험을 함께 나눌수록, 공동체는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바야흐로 겨자씨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룹니다. 나무 한 그루에는 작은 새들 몇 마리가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면 토끼, 노루, 여우, 원숭이, 곰과 같은 많은 동물들과 또 다른 식물들이 함께 자라는 터전이 됩니다. 숲은 크고 작은 생명들을 불러 모읍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커다란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숲은 꿈을 꾼다. 수많은 생명들이 품고있는 꿈들이 한데 어우러져 더 크고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 냅니다. 2017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겨자씨 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더욱 아름답고 울창한 주님의 숲을 만들어갈 기대해 봅니다.

심홍섭 목사

여성교회

하남 소망의집을 다녀와서



사람이든 장소든 애절한 보고품과 그리움이 있을 때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약간의 봄바람에 묻어있는 따뜻한 공기가 겨울을 건너는 날. 우리들은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짜인 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새로운 삶-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움이 기다리고 있으려나 하

고요.

2월13일 제6여성교회에서 '하남 소망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지체 장애인들이 모여 생활을 하는 장애인 시설로 많은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작은 도움으로 그분들께 작은 사랑을 전하려 한 달에 한번 방문을 합니다. 식사 준비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설거지도 하며, 봉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누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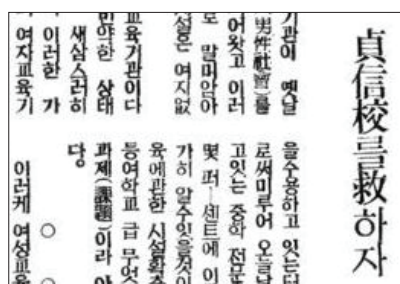
에 도움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봉사를 할 때 어려움도 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피로를 잊게 해주니 감사함에 마음에 힐링을 얻기도 합니다. 한 달에 한번 만나는 아이들,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더하길 함께한 봉사자 모두는 소망합니다.

이주영 집사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41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20)

眞信교를 구하자



'정신교(眞信校)를 구(求)하자', 「동아일보」 1938년 10월 26일

정신여학교 폐교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 일각에서 정신여학교를 구하

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랫동안 중등교육을 담당해 온 정신여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이 사회를 위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었다. (아래 신문기사는 당시 3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던 학생이 신문에 투고 한글)

(상략)

다시 돌아볼진대, 정신여교는 오십(五十)년전에 창립되어 일찍이 이 땅 여자교육의 요람이 되었고 춘풍

추우 반세기(半世紀)에 수백(百)의 재원을 양성하였다.

그렇건만 정신여교의 이제 여명은 앞으로 일(一)개년이, 이 학교의 구명운동도 이때 바로 일(一) 것이나 정신여교에서 배움을 받은 동무들은 지금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일찍 평양의 송실(崇實)과 송의(崇義)를 잃은 교육조선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선교회측에서 이제 그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

육은 살려 나아가려는 노력과 열성을 목살할 것이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다만 방법 여하와 우리의 열성 여하에 달려있을 것이다. 우리의 여성교육기관 "정신"은 지금 구원의 손을 기다리고 있다. "송의"의 오십(五十)년을 불사른 것도 천추의 한사이려니와 "정신"마저 어찌 잃을 것이라. (곽복신)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아기나들이



김윤슬 아기

2016년 10월 28일생

1.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게 하소서
2.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3. 부모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어 좋은 양육자가 되게 하소서

아빠 김윤창 / 엄마 김선령, 2017년 2월 19일 3부 예배

교회소식

2월 권사 월례회

2월 15일(수) 소예배실에서 권사회 2월 월례회가 열렸다. 임창진 목사는 “어두운 역사 속의 한줄기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 어려운 나라 현실 속에서 권사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어머니가 되길 바라는 말씀을 해주었다. 권사회에서는 차기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2월 16(목)부터 3월 14일(화)까지 드린다고 한다. 최정숙 권사는 “2017년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가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여, 지하 1층 사랑나무실에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님의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평일 기도방을 오픈하였다.”고 하며 “2017년도 권사회는 오직 기도에 열중하는 권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함줄함울



교회소식

2017년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2017년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가 2월 24일(금)과 25일(토) 지하 중예배실에서 열렸다. 24일에는 200여명의 겨자씨들과 겨자씨 인도자(권찰) 겨자채 돌봄이, 겨자씨 섬김이들이 참여하여 성경강좌와 박원호 목사의 말씀으로 여는 예배를 드리고 정재찬 교수의 인문학 강의 “시를 읽은 그 대에게”를 늦게까지 재미있게 들었다. 25일(토)에는 350여명의 참가하여 레크레이션과 김형석 교수가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강의를 듣는 귀한 시간을 가진 후에 교구 목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주님의교회는 10개 교구에서 겨자씨 예배가 드러진다.

함줄함울



교회소식

서울 은퇴 목사회 월례회

서울 은퇴목사회 2월 월례회가 2월 21일(화) 중예배실에서 230여명 경기와 서울 은퇴 목사들이 참석을 하여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매년 2월에 주님의교회 주관으로 행사를 하며 노봉옥 장로의 기도와 박원호 목사의 설교 후에 선물과 식사를 제공해 드렸다.

함줄함울



알립니다

1.살롬찬양대(3부 예배) 대원 모집

모집 부문 : 각 파트 약간 명
연습 시간 : 주일 오전10:00, 오후1:20~3:00
문의 : 총무 장관수집사(010.4816.3140)

2.겨자씨 인도자 모임 개강: 3/8(수)

시간 및 장소(각 교구별 공지)

3.젊은이교구 베이비 씨터 모집(1명)

기간 : 3/5~6/25 매주일 오후1:30~2:30
문의 : 임익수안수집사(010.3758.6162)

4.2017 해외선교 비전트립 모집

키르기즈스탄 : 3/17~3/25, 20명
베트남 : 8/1~8/7, 35명-고등부 10명 포함
코스타리카 : 8/6~8/15, 15명
신청 : 3/5 ~ 3/26까지(선착순) 매 주일 오전 8:30~오후2:00, 교회 1층 로비

5.양육클래스 불학기 개강(3/7(화)~6/9(금))

접수장소 : 1층 로비
문의 : 방순화권사(010.3622.1368)

6.예수친구사역 2,3단계 정기모임

일시 : 3/7(화) 오전(10:30), 오후(19:30)
장소 : 소회의실(2단계 오전반), 대회의실(2단계 저녁반), 5층 1집회실(3단계)
문의 : 박주영 전도사(010.3347.0390)

7.젊은이교구 겨자씨 전체개강모임

일시 : 오늘(3/5) 오후1시, 1층3집회실
대상 : 10교구 누구나(자녀들 동반)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